

문화산책

‘장미·토끼·소금’ 가을에 만나는 광주시립미술관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



가을은 사유의 계절이라고 한다. 여름의 불볕더위가 지나고 서늘한 공기가 감각을 맑게 하는 시기, 우리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지금의 삶을 되돌아본다. 나무는 잎을 떨구며 다음 생을 준비하고, 사람은 멈춰 서서 자신을 성찰한다. 예술 역시 이러한 계절의 리듬과 닮아 있다. 찬란함 뒤에 남은 여운, 그 여운 속에서 피어나는 사유의 순간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다. 이 가을, 광주시립미술관이 선보이는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전시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예술과 인간의 감각, 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아 있음’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전시 제목 속 세 단어, 장미(Rose), 토끼(Rabbit), 소금(Salt)은 각각 부재의 감각, 상실감과 애도, 생명 회복의 상징으로, 작가들은 이러한 대상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불안, 관계, 치유의 문제를 제의적 형식으로 시각화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우선 ‘장미’의 공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간이 멈춘 듯 화려하게 빛나는 연분홍 꽃잎, 깨

어지고 재결합된 도자의 형상은 아름다움이 가진 덧없음을 일깨운다. 이어지는 ‘토끼’의 섹션에서는 남겨진 개인이나 집단의 상실감을 드러내며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끈다. 마지막 ‘소금’의 공간 역시 존재의 생명과 기억의 장이다. 나무와 이끼, 식물의 독백이 관람자들에게 감각의 언어를 전달하며, 쌓아진 소금 결정의 형상과 빛은 관객의 마음을 달래며, 고통과 치유,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서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은 관람객이 단순히 ‘보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작품의 의식에 ‘참여하는 존재’로 초대된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이미 제의의 한 부분이 된다. 빛과 시간, 소리와 형상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감각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제의’로서의 예술이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과정이다. 이처럼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시 감상이 아니라 문화적 재충전의 시간이다.

빠르게 흐르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유와 감정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그것이 미술관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작품을 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레 타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익숙했던 사물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예술은 결국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문화적 자구이며, 그것은 곧 삶의 감수성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광주시립미술관은 특히 지역민에게 ‘일상 속의 문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비엔날레 전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제시하는 동시대 예술의 언어를 직접 접할 수 있으며, 지역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과 세계, 개인과 사회를 잇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자, ‘광주’라는 도시가 예술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다. 전시 관람을 마친 뒤에는 중외공원의 ‘아시아 예술정원’을 산책하길 권한다. 미술관을 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은 가을의 풍경 속에서 예술의 여운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다채로운 조각 작품이 숲과 어우러져 있으며,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로 예술이 자연과 만나는 풍경이 펼쳐진다. 잠시 벤치에 앉아 전시에서 느낀 감정을 되새기다 보면, 예술과 일상이 한데 이어지는 경험으로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가을의 미술관은 단순히 계절의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감각을 불어넣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문화적 제의’의 장소다. ‘장미 토끼 소금’ 전시는 그 제의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전시장을 나와 공원의 길을 걸으며,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예술은 언제나 그 계절의 언어로 말을 건다. 이 가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살아 있는 제의’를 공감하고, 중외공원의 가을빛 속을 걸으며 마음의 호흡을 가다 들어보자. 그것이야말로 예술과 자연이 함께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일 것이다.

기고

빠빠용Zip, 장흥에서 삶과 영화가 만나는 공간

정주미

장흥 빠빠용Zip 영화 파트장



나고 자란 광주를 떠나 장흥에 온 지도 어느새 2년이 되었다. 광주에서 차로 1시간 20분 남짓이면 달을 거리지만, 막상 살아보기 전까지 장흥은 내게 그저 지도 속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직장을 얻고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역에서 산다는 건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품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빠빠용Zip(옛 장흥교도소)’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장흥에 교도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2월의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던 그날, 텅 빈 교도소 건물 앞에 서 있으니 알 수 없는 서늘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그렇게 시작된 ‘낯선 두려움’은 이제 나의 일상이 되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흔히 억압과 단절, 고립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의 빠빠용Zip은 그 이미지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삶과 이야기,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며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곳이 되었다. 1975년에 문을 열고 2014년까지 운영되던 장흥교도소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새 삶을 얻었다. ‘빠빠용Zip’이라는 이름은 1974년 영화 ‘빠빠용(Papillon)’에서 따온 것으로 불어로 ‘나비’를 뜻하는 빠빠용과 파릴 압축을 연상시키는 ‘zip’,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억압의 상징이던 공간이 이제는 회복과 공존, 사색과 치유, 그리고 창작의 집으로 변신한 것이다. 새 교도소로 이전한 2015년 이후 이곳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았다.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되며 전남남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케이션 장소가 되었다. 영화 ‘1987’, ‘술기로는 감행생활’, ‘드라마 ‘더 글로리’, ‘모범택시2’까지 좋아하던 영화 드라마 장면 속 배경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 동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장흥은 예로부터 ‘문림의향(文林義鄉)’으로 불린다. 문학과 예술의 기운이 깊게 배어 있는 땅이다. 이정준 작가와 한승원 작가가 모두 이곳 출신이고, 임권택 감독 또한 장흥을 무척 사랑했다. 영화 ‘서편제’의 원작자 이정준,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작가 한승원, 그리고 영화 ‘죽제’, ‘천년학’을 장흥에서 촬영한 임권택 감독, 이들의 이름만으로도 장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영화 세트장이자 문학의 무대가 된다. 이정준과 한승원, 송기숙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영화로 다시 태어나며 장흥의 풍경은 스크린 위에서 또 한 번 살아났다.

작은 시골 도시이지만, 장흥은 분명 ‘영화로운 도시’라 부를 만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또한 어느새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이 되어가고 있다.

영화 일이 좋아 광주의 영화판에 뛰어들었던 나에게 장흥에서 영화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큰 숙제였다. 도시의 영화 현장에서만 살아왔던 내가 이곳에서는 ‘문화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도구 삼아 지역민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건 낯설고도 막막한 과제였다. 시골에서 밥 일을 하다 영화 찍으러 가고, 모두가 감독이자 배우가 되며 카메라가 삶의 한가운데 놓이는 그런 ‘영화로운 일상’이 과연 가능할까? 그 물음 속에서 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획하게 된 것이 마을 주민을 번사로 양성, 마을 번사가 되어 마을을 찾다니며 공연을 하는 마을 순

회 무성영화번사극 ‘빠빠용 유랑단’과 장흥의 마을 이장들과 함께 새로운 촬영지를 발굴하는 ‘빠빠용 로캣단’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장소를 영화의 언어로 다시 읽어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영화는 카메라 앞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의 문화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짧은 세대 못지않다는 것도.

이 외에도 빠빠용Zip의 또 다른 영화로운 공간인 ‘영화로운 책방’과 ‘영화당’은 영화와 지식, 배움과 향유가 흐르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장흥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문화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빠빠용Zip은 지난 7월 25일 개관 이후 또 한 번의 나비의 비상을 준비 중이다.

최근 리모벨링된 서로살림터에는 화덕터와 공유 주방이 마련되어 지역민과 관람객이 직접 피자과 가마솥 요리를 만들고 나누며 장흥의 생태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또나 인형 만들기’, ‘뜨개 명상’, ‘내가 만든 요리방’, ‘보드게임’, ‘꽃차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민과 관람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있다. 앞으로 서로살림터는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산 수리, 자전거 수리 등 생활 기술자들의 참여로 흥미로운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말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삶과 영화, 사람과 공동체가 맞닿는 장흥의 빠빠용Zip. 이곳에서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나비처럼 날아오른 이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는 삶과 영화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설

정부, 광주현안사업 지방비 부담 줄여야한다

광주시가 내년에도 41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부족을 보충하거나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실제 대표적인 발행 사업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508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365억원 등이다. 문제는 광주 재정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채무 비율 23.1%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이자로만 1195억원을 부담했다.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37.37%로 가장 낮고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 또한 54.31%로 최하위다.

심각한 것은 지방채 발행 사업 대부분이 현안사업들로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으로 이어지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비율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라는 데 있다. 실제 당초 1조7394억원이었던 사업비가 공사비 폭등으로 현재 3조1449억원까지 불어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경우 끝나는 2030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시비를 매년 부담해야 된다. 국비와 시비가 6대 4 비율이어서 광주시 부담 비용이 1조2581원이 넘기 때문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이 드는데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사업이어서 시비만 4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앞선데 덧붙여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2500억원 늘어 광주시 국비 매칭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도 지방비 매칭액이 76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매칭사업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도 강도 높은 세율 구조조정과 신규 세원 발굴에 나서는데 내년에도 채무비율을 23% 내외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타 광주공장 재가동’ 정상화 계기 돼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14일부터 생산라인을 재가동한다고 한다. 지난 5월 17일 대형화재로 멈춰 선지 약 6개월 만이다. 금호타이어는 13일 업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주공장 가동 종합설명회’를 열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작업복과 안전화를 지급했다.

이번 재가동에는 일단 전체 기능직 직원 1853명 중 400여명이 기존 4조·3교대 방식으로 투입돼 하루 타이어 4000본을 생산한다.

인원 규모는 공장 보수와 설비 보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유급 휴직 형태로 휴직 중인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 투입전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산은 화재 피해를 피한 1공장에서 우선 진행된다. 이 곳에서는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 공정과 고무에 열과 압력을 가해 단단하게 굳혀 타이어 형태를 완성하는 가류 공정을 담당하고 2공장은 불에 타지 않은 일부 남은 설비를 활용해 검사·선별·출하 공정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에 탄 2공장이 맡아 왔던 정련 공정은 현실상 불가능해 곡성공장에서 정련된 고무를 들여오기로 했다.

생산 규모는 라인안전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초 하루 생산 6000본 규모로 늘린 뒤 상반기 1만본 체제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1공장 시범 가동을 통해 하루 1000본 생산 테스트를 마쳤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재가동과 함께 합평에 ‘1단계 공장’ 건설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하루 총 2만1000본의 타이어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재가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주공장의 정상화와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준공 목표인 합평 빛그린산단 ‘1단계 공장’ 건설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이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침체된 지역경제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연간 타이어 1200만 개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광주공장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와 함께 광주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산업시설이다. 이번 재가동이 공장 정상화를 앞당기고 더욱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팁스의 불씨, 지역 창업 생태계로 번질까

송대웅

경제부 차장



창업의 성패는 기술보다 ‘기회’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투자와 네트워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장과 소비자에게 닿을 수 없다.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은 프로그램이 바로 ‘팁스(TIPS)’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광주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개최한 ‘호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는 지역 창업기업들에게 수도권 중심의 투자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선발·투자한 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700여개 기업이 참여해 173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호남권 행사는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창업기업과 운영사 등 100여개사가 교류하며 투자 설명회, 네트워킹, 선배 팁스기업의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 고흥의 해신, 나주의 위즈광, 광주의 셰어플랫폼이 각각 최우수·우수·장려기업으로 선정되며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팁스의 핵심은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무대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전국의 팁스 운영사는 약 120곳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약 70%가 몰려 있다. 광주 지역 운영사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연합기술지주, 전남대기술지주까지 3곳 뿐이다. 그만큼 지역 기업은 심사나 네트워킹 과정에서 물리적 제약を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행사의 의미가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균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지속성’이다. 한 번의 행사가 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그 온도는 빠르게 식는다.

팁스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운영사의 지속 참여와 지역대학·연구기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사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370-7060 370-7222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370-708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